

지역 소식통

고창군, 30일 문화의전당 기업유치 추진상황 설명회

최근 전북최초로 삼성전자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고창군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전 10시 고창군문화의전당에서 '민선 8기 기업유치 추진상황 설명회'를 연다. 이날 심덕섭 고창군수는 직접 PT를 발표하며 민선 8기 기업유치 상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민선 8기 고창군은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삼성전자(주), 주지텍, 주)에스비푸드 등 알짜 기업 3곳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7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고창산업혁신단지 기준 49%의 분양률을 보이며 주민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2024년도 고구마 조직배양묘 공급 홍보

고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해 국내육성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관내 농가들에게 공급한다.

내년도 고품질 고구마 재배를 위해 내병성이 강한 조직배양묘 공급 신청을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 농가의 신청량과 희망 시기에 따라 내년 2~3월 본격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구마 조직배양묘는 무균실에서 배양되어 바이러스 및 병의 감염률이 낮아 일반 품종에 비해 약 20% 정도 수확량이 많고 외관 품질도 좋아 고구마 재배 농가들에게 인기가 좋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내육성 품종으로 소담미, 호풍미 2개 품종 총 2만주를 내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고창군에 주소소를 둔 고구마 재배농가로 고구마 육묘용 하우스가 있는 농가가 우선 신청 대상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외래품종을 대체한 국내육성 고품질 고구마 재배기술 보급을 통해 고창군 재배농가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동학농민혁명단체 국회사 공동성명

정읍시·39개 단체... "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자"

"고부에서 시작된 제폭구민, 보국안민의 횡포와 합성이 황토현에서 큰 결실을 맺고 전국으로 확산했다."

정읍시가 3·1 독립운동의 뿌리이자 민주주의의 시조인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기 위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28일 국회에서 전국 39개 동학농민혁명 단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전문 명시를 관철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동학농민혁명 단체가 국회에 모여 공동성명을 낭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의원회관에 모인 동학농민혁명 단체들은 헌법전문 명시의 필요성과 당위성, 선양사업의 전국화를 위해 입을 모았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의 뿌리이자 이후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회관에서 국회 본관으로 자리를 옮긴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헌법 전문에 명시가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20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이 헌법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더 이상 논의가 없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명의 도시 정읍시가 발 벗고 나서 다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과 혁명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세계혁명대회 연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세계 혁명도시간 연대와 협력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이 전북에도 발생해 정읍시가 선제적 방역에 나섰다.

"럼피스킨병 확산 막는다"

정읍시, 예찰지역 농장 3만여두 대상 긴급 백신접종 등 총력 대응

충남 서산에서 발생한 소 '럼피스킨병'이 전북에도 발생해 정읍시가 선제적 방역에 나섰다.

정읍시는 지난 25일 부안군 백신면의 한 한우농가의 소가 럼피스킨병 확진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비상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2539농가 10만 2781두)만큼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럼피스킨병은 소가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전염될 경우 소의 피부에 단단한 혹이 나고 고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폐사율은 10% 이하다.

시는 먼저 럼피스킨병 방역대책본부를 긴급 설치해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예찰과 각 읍·면·동 가축방역 전담반을 활용해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순정축협 공동방제단과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축방제차량을 총 동원, 지난 21일부터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원인인 흡혈곤충 방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읍지역과 인접한 부안군 백신면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됨에 따라 예찰지역농장 487농가 3만 302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5일간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한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가 접종하고,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접종하는 방식이다.

가축에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가축진병 의심 신고전화(1588-9060/4060) 또는 시 가축방역상황실(063-539-6382)로 신고하면 된다.

이화수 시장은 "럼피스킨병의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에서는 축사 소독과 해충 방제에 힘써달라"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시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129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홍재일기로 본 격동기 조선 사회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 주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동학농민혁명 129주년을 맞아 부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및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26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재일기로 본 격동기 조선 사회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재인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홍재일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부안군 주산면에서 살았던 기행현(奇幸峴)이 1866년부터 1911년까지 약 45년간 일상을 기록한 일기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최근 국가등록문화재로 선정돼 문화재청 심사를 받고 있다.

특히 홍재일기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의 집결일이 1894년 9월 26일이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고 동학농민혁명 전후 조선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영우 동학농민혁



명연구소장의 기조강연(홍재일기의 사료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을 시작으로 총 5편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제1차 봉기(유비대 고려대교수)', '홍재일기를 통해 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부안지역 동학농민군의 활동과 성격(정을경 충남역사문

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재일기로 본 동학농민혁명 이후 조선 사회의 변동 양상(조재문 서강대 연구교수)', '기행현의 과거 준비와 응시 및 인적 네트워크(전경목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홍재일기로 본 조선 후기 지명 연구(김병남 전북대 교수)' 순으로 이뤄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변산반도 생태탐방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협약 체결

부안군과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은 26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홍보 및 발전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질공원 교육과 관광, 지역상품과 체험프로그램 홍보, 탐방객 안내 및 편의 제공, 지질공원 및 지역축제에 대한 상호지원 등 지역경제 및 지질공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협약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정의된 지질공원은 지질자원과 비지질자원을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모색하고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부안군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질공원 목표에 따라 지역주민과 기관이 활발히 지질공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오파트너 발굴, 지오상품(지오푸드, 체험 등)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변산반도 국립공원,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공주대학교 지질환경학과, 유유마을, 향토비지락죽, 슬지제빵소, 바다호텔, 모항해나루호텔 기관은 2017년부터 지질공원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탐방·체험 프로그램, 축제 등 지역과 지질공원 활성화에 힘써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생태탐방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국회 방문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심덕섭 고창군수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종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을 방문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심 군수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과 면담을 통해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200억원) △고창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39억원), △세계자연유산 고창 지역센터 건립(170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 설명을 하며 국비 지원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는 △성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63억원)의 내년도 공사비 39억원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플랫폼 구축사업(200억원)의 내년도 실시계획비 4억원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만나 △고창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39억원)의 내년도 공사비 국비 28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